

30대 남성·축제 ‘관광 활성화’ 주도

전년비 방문객 광주 6.7%·전남 4.3% ↑

역사·문화·숙박·기타관광 수요 확대

10월 지역 축제에 유입 큰 폭 늘어나

30대 남성과 지역축제가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를 주도한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전남을 찾은 외지인 방문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4.3% 증가했다.

양 지역 모두 30~39세 남성의 방문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방문은 광주·전남에 전년 동기 대비 9.9%, 9.1% 늘었다.

반면 양 지역 모두 0~9세 방문자가 줄어 어린 이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유입 지역을 보면 상호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를 찾은 외지인은 전남, 경기, 서울 순으로 많았고 전남 역시 광주, 경기, 서울 순으로 방문객이 많아 수도권과 광주·전남권 간 이동이 활발했다.

관광 목적별 내비게이션 검색 비중에서는 지역별 특징이 명확히 엿걸렸다.

광주는 음식 검색이 54%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3.2%p 줄어들었다. 대신 문화관광과 쇼핑 검색이 증가하며 관광 형태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남은 음식 38%, 기타관광 15.5%, 숙박 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관광과 숙박 검색 비중이 확대돼 체류형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지인 비중이 높은 목적지로는 전남은 역사관광, 기타관광, 문화관광 순으로 남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광주는 기타관광, 숙박, 문화관광 순으로 체험형·도심형 관광 선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달 방문자는 광주 689만2천69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531만602명) 29.8% 증가했다. 전남은 1천511만3천644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1천60만4천52명) 42.5%나 늘며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0월에 광주 충장축제, 김치축제, 버스킹 월드컵, 나주 영산강 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크고 작은 대규모 축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관광객의 유입이 대규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2025 광주 방문의해’를 맞아 마케팅과 광주만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숙박페스타 등과도 연계해 지역을 많이 방문한 것 같다”며 “지속적인 외지인 방문객 증가세는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돼 내년에도 관광객들이 광주를 재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내 일자리 어디에” 남구청과 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2025 남구 일자리 박람회 18일 오전 남구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려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중장년 구직자가 채용계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코스피 코스닥 키맞추기…바이오주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1월12일~11월18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3.8%, 코스닥도 1% 가량 하락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 2조2천억원, 코스닥은 5천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만 1조8천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3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3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며 실적이 부진했던 회사들은 대체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저변 한 주는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는데 제약 바이오 내에 에이비엘 바이오가 일라이릴리 항 대형 계약을 발표하며 업종 상승을 이끌었고, 2차 전지 섀터도 리튬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를 방어했다.

시장이 한동안 쉬어가는 중에 연말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도 내년 투자 전략을 세워볼 시기다. 2025년은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던 한 해였다. 특히하게 non-US 국가들의 강세와 신흥국의 두드러진 약진이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환경 안정화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달러 약세가 맞물리며 형성된 결과였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떨까. 내년은 경제 및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되고 혁신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완화적 정책 기조에 힘입어 글로벌 유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흥국의 경기 및 실적 모멘텀이 상반기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는 논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AI 버블론 이후 나스닥 고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공매도한 마이클 버리는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들의 내구연수를 과다하게 인정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월 25일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선언, 이에 투심은 확실히 더 조심스러워진 모습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비디아 지분 58억 달러가

량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12일에 전해졌고, 대만의 삼성전자인 TSMC의 매출 증가세가 18개월 만에 최저로 둔화했다는 뉴스도 나오며 지난주 SK하이닉스(-8.5%)와 삼성전자(-5.45%)를 동반 하락시켰다.

하지만 인공지능 발전의 국가 기업적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AI 투자가 꺾일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다. 실제로 기업들의 AI 활용 추세는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다. 미국 테크 업계는 인력을 감원하고 AI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9월 엑센츄어 1만1천명, 10월 아마존 1만4천명 감원 발표가 대표적이다. Rockstar와 TripAdvisor 등 게임, 여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활용성이 확대되면서 AI 전환이 확대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감원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AI 기업의 투자, 경쟁, 발전은 필연적이거나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두를 지키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가속, 부침이 있겠으나 레이스 포기는 어렵다. AI 레이스는 군사 및 안보, 경제·산업 지배력과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과 모두 연관돼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어젠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G2(미국·중국) 갈등은 관세전쟁보다는 기술 패권, AI 패권 경쟁이 핵심으로, AI 레이스 참가 국가와 기업의 투자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일 것이다.

최근 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원화 약세가 반드시 국내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 원화 약세는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수급은 환율보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 변화에 따라 갈릴 것이다. 엔저 국면에서 일본 증시가 계속 강했던 것처럼 원 달러 상승이 추가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에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부터 코스피가 약 50%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은 4% 상승에 그쳤고, 최근 코스닥 150지수의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이 미국에서도 강세이기 때문에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바이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형주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연말에 MASH(지방간염) 치료제 3상 임상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코스닥 시총 1등 알테오젠도 저변 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위 가격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GICON ‘지스타 2025’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성료

지역 게임사 글로벌 진출·B2B 성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8일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25’에서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관에는 광주 지역의 우수 게임 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모비소프트, 스튜디오브리즈, 아름게임즈, 지니소프트, 커피캣, 행복한다 람쥬단, 쓰리데이즈, 제로젯, 팀다다 등은 각사의 주력 게임 및 출시 예정작을 선보이며 참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공동관 부스는 총 20개 부스 규모로 구성돼 아홉 가지 원색을 사용해 9개 게임사와 콘텐츠의 다양성을 표현했다.

모든 방향에서 자유롭게 입·퇴장이 가능한 개방형 동선을 마련해, 참관객이 편하게 게임을

체험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매일 1회 진행된 럭키드로우 이벤트는 게이밍 관련 아이템과 광주글로벌게임센터 로고가 새겨진 선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B2B 비즈니스 매칭도 활발히 진행됐다.

사전 섭외된 40여 명의 글로벌 바이어들을 비롯한 국내외 바이어들이 공동관 부스를 방문해

참가 기업과 총 96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참가사들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력 기업들과 향후 추가적인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공동관에는 GICON의 콘텐츠 인력 육성 사업인 GCC사관학교도 참여했다. 공동관 참가사 중 6개사와 GCC사관학교가 온라인 교육 연계 협력 MOU를 체결하며 지역 게임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안태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 하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 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